

# 익산서 전국 규모 대회 잇따라

지난달 장애인종별육상 등 개최  
이달 여자야구·육상경기 예정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대

익산에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최근 개최된 제7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3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 겸 제1차국가대표선발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 아마추어 핸드볼대회 중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제7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는 80개팀 881명의 선수를 포함한 1,5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관중들의 열띤 응원 속에 지난달 28일부터 9일간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익산시는 중등부에서 이리중 3위, 고등부에서 전북제일고 준우승 대학부에서 원광대가 우승을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진행된 '제3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장애 유형별로 고등학교부, 일반부 나눠 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전북 유일 1종 공인 육상경기장인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경기를 통해 한국 신기록 7개(필드2, 트랙5), 대회 신기록 45개(필드28, 트랙7)가 쏟아져 기록면에서도 풍성한 대회였다.



익산시는 지난달 27일 제3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 겸 제1차국가대표선발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달에는 전국 규모 대회인 전국여자야구대회와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가 익산 야구장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면서 2천여명이 익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택림 시장 권한대행은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련 협회 및 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많은 선수들과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KLPGA 챔피언십 정복 김아림**  
세계랭킹 39위... 10계단 상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을 정복한 김아림이 세계랭킹에서도 재미를 봤다. 김아림은 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균 2.38로 지난주보다 10계단 상승한 39위에 자리했다. 김아림은 지난 1일 끝난 KLPGA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패권을 거머쥐었다. 2020년 12월 US여자오픈 우승자로 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김아림은 오랜만에 나선 국내 대회에서 정상에 섰다. 세계랭킹 상위권은 여전히 견고했다. 고진영과 넬리 코다(미국)가 1~2위를 지킨 가운데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가 고가 3위를 유지했다. 김효주와 박인비는 한 계단씩 상승해 각각 7위와 8위에 자리했고, 김세영이 10위로 톱10에 재진입했다. /뉴시스

# 국기 태권도 세계화 '맞손'

태권도진흥재단, 팬아메리카태권도연맹과 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3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팬아메리카태권도연맹(회장 Juan Manuel Lopez Delgado)과 업무협약을 맺고 태권도 세계화와 보급 교육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오응환 이사장과 팬아메리카태권도연맹 진동환 기술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위한 협력, 태권도 프로그램 및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업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팬아메리카태권도연맹 진동환 기술고문은 "연맹을 대표해서 오늘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태권도 보급과 활성화에 함께하기로 해 기쁘다"며 대한민국 정부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45개국 태권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팬아메리카 태권도연맹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등 태권도 보급을 위한 노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재단의 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한류로서의 태권도 교육적 가치로서의 태권도를 국내와에 보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3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팬아메리카태권도연맹(회장 Juan Manuel Lopez Delgado)과 업무협약을 맺고 태권도 세계화와 보급 교육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3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팬아메리카태권도연맹과 업무협약을 맺고 태권도 세계화와 보급 교육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임실군청 사격팀, 전국 대회 女일반부 단체전 '우승'

임실군청 사격팀이 '제5회 대구시장애인 전국 사격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단체전 대회에서 여자일반부에서 화성시청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2023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메이저대회 중 하나로서,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함된 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국내 랭킹 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여만의 메이저대회 금메달로 공교롭게 최강자 자리에 앉으며 그 값어치를 다했다. 박민수 감독은 "기존 선수들과 영입 선수들이 함께 활약하며 좋은 결과를 거두어 기쁘다"며 "임실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열심히 따라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영구 문화체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훈련을 잘 견뎌준 선수들



과 박민수 감독에게 감사하고, 임실군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보낸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 피겨대회 연령 15→17세 상향 방안 논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발리예바 도핑 사태 계기... 6월 총회서 결정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6월 6일부터 10일까지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제58회 총회에서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대회 출전 선수 연령 제한을 높이는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AP통신은 2일(한국시간) ISU가 의류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사항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ISU는 피겨 시니어 대회 출전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5세에서 2023~2024시즌 만 16세로, 2024~2025시즌부터 만 17세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이 있는 2025~2026시즌에는 만 17세 이상의 선수들만 시니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ISU 의류위원회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어린 10대의 스케이터들이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훈련해야 하는 환경이 됐다"며 "선수들은 번아웃과 불규칙한 식사, 고질적인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ISU가 청소년 엘리트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

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벌어진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도핑 파문이 피겨 시니어 대회 연령 제한 상향 조정의 계기가 됐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25일 러시아선수권대회 당시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돼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로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규정된 정보공개 보호 대상자라며 올림픽 출전을 허락했다. WADA가 만 16세 이하 선수들에게 낮은 수위 징계를 내리는데, 이로 인해 도핑 위반이 적발된 선수가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되자 피겨 시니어 대회 출전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ISU는 제2의 발리예바 사태를 방지하고자 조처에 나섰다. /뉴시스

##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